

# 올 수능도 문·이과 통합형...킬러문항 피한다

### 11월 17일 시행...국·수 공통+선택과목, EBS 연계 50%로 낮춰 검토자문위원 확충·출제기간 확대...사탐·과탐영역 오류 개선될 듯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수학영역에 선택과목을 두고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하는 '문·이과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 국·수 공통+선택과목...사회·과학 구분없이 2과목 선택=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해 2022학년도 수능에 처음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는 올해도 이어진다. 국어·수학·직업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국어영역에서 공통과목(75%)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영역에서는 공통과목(75%)인 수학 I·II 의

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사·과탐에서는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에서는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이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다. 기존에

70%였던 연계율은 지난해부터 50%로 낮아졌다.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출제되고, 영어 영역에서 올해도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 출제오류 방지·이의심사 개선...적정난이도 유지 노력=올해 수능에는 2022학년도 생명과학II 출제 오류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교육부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이 적용된다.

출제 1·2차본 검토와 최종 검토 사이에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를 신설한다.

출제·검토위원이 정답률이 낮다고 판단한 문항을 대상으로 영역별 위원장과 기획위원, 평가위원, 검토자문위원(사회·과학), 검토위원 대표, 검토대상 문항 출제위원 등이 정답 이상 유무, 제시문 및 제시 조건의 완결성·실제성 등을 집중 검토한다.

'수능 문항 오류 사례집'과 'EBS 연계교재 오류 사례 및 수정내용 자료'를 출제·검토 협의실에 상시

비치한다.

이른바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2022학년도 수능 결과와 2023학년도 6월·9월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정 난이도 유지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22 수능에서 채점위원장을 맡았고 최근 취임한 이원장은 "이번에는 특별히 고난도 문항에 대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됐다"며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에서 문항 오류 부분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은 7월 4일 공고되며 원서 교부·접수·변경 기간은 8월 18일~9월 2일이다.

수능일인 11월 17일부터 그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11월 29일에 정답을 확정한다. 성적은 12월 9일 통지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북구 최우수기관 선정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시행

광주시 북구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지방세정,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한 실적을 평가했다.

지난해 북구는 고액체납 징수기동반 운영을 비롯해 세무부서 전 직원 책임 징수제,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 등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창업·임주기업을 위한 지방세 맞춤형 상담', '마술과 함께하는 세금교실' 등 다양한 세정 시책을 펼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중앙호수공원 맑아져라 제30회 세계 물의 날'인 22일 오후, 광주 서구 중앙호수공원에서 서구청 관계자들과 신세계 백화점 직원들이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한 'EM 흙공'을 던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5·18학' 정립 가능성 모색 '오월기억포럼' 개최

### 5·18기념재단 25일부터 5차례

5·18민주화운동을 학문으로 정립해 지속적인 연구·계승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강연 및 대담이 진행된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오월기억포럼'이 열린다.

'오월기억포럼'에서는 재독한인, 대동민주주의, 증언 등의 주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다양한 이해와 더불어 '5·18학'의 정립 가능성을 탐색한다.

25일에는 정진현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재독

한인 생애사를 통해 본 5·18항쟁의 열망'을 주제로 과독 광부와 간호사의 타이틀로 독일로 보내졌던 사람들에게 1980년 5월은 어떤 의미였으며, 이들이 현재까지 재유럽오월민중제를 이끌어오게 한 열망을 이야기 한다.

4월 15일에는 '5·18과 대동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이영재 한양대 교수가 강연한다. 이후 허완중 전남대 교수의 토론을 통해 대동민주주의와 공감각 개념을 바탕으로 5·18민주주의를 논의한다.

5월 13일에는 배하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가 '반복과 차이: 5·18증언의 정치와 윤리'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6월 10일에는 '죽음과 마주하는 무감각-광주를 다시 응시하며'라는 주제로 박준상 숭실대 교수가 강연을, 강소희 전남대 박사·김형중 조선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4월 28일과 6월 10일에는 '5·18학' 정립을 위한 강연과 토론을 최정기 전남대교수, 정명중 전남대 교수, 지병근 조선대 교수가 진행한다. '오월기억포럼' 중 일부는 5·18기념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금오도 '식방풍' 식의약소재화 연구 착수

### 전남대 양승환교수팀

전남대학교 양승환 교수 연구팀이 여수 금오도의 특산물인 '식방풍'을 식의약소재로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전남대 양승환 교수(생명산업공학과) 연구팀은 '정신건강(인지능개선 등) 증진 기능성 자생식물의 신소득 작물화 연구'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22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선정. 앞으로 5년 동안 약 3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같은 연구에 나서게 됐다.

양승환 교수팀은 정신건강 증진 시험법 구축 및 바

이오마커를 활용한 원료의 효능 검증, 국내산 정신건강 증진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및 실용화 기반연구, 원료의 제분화 및 산업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식방풍'은 여수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금오도 137ha에서 국내 재배의 90%인 1.3여 톤이 생산될 정도로, 지난해 주철현 국회의원이 이를 이용한 농가소득 정책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연구팀은 그동안 연구해 온 '천연자원(식방풍) 추출물의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항산화 활성 연구'를 바탕으로 인지기능 개선 기능성 식의약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동강대 'AI 챔피언 대학' 선정...모범 교육모델 인정

동강대학교가 2020년부터 도입한 'AI(인공지능) 활용 교육혁신 교수법'이 모범 모델로 인정받으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교육협회가 'HTHT(High Touch High Tech) 교육모델'을 선도하는 우수 대학 양성을 위해 마련한 'AI 챔피언 대학'에 동강대가 선정됐다.

'HTHT'는 AI 시스템을 통해 학생 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받아 교수자의 강의 부담은 줄이면서 학생과 보다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

성, 다양한 교수학습방식을 시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다.

동강대는 2020년부터 아시아교육협회가 주관한 'HTHT 컨소시엄' 전문대 분과에 참여해 'AI 기반 에듀테크 모델'을 운영 중이다. 동강대는 비교과 수업으로 ▲토의영어 ▲수학 ▲기초영어 ▲국어 과목을 진행했고 전국 전문대학 뿐 아니라 4년제 대학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모범 모델로 꼽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남구 독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 선정

광주시 남구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 '2022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선정. 오는 4월부터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손잡고 7개월 과정의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방림동에 위치한 '꽃꽃친구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한차례씩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정보도서관 탐방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이곳 지역아동센터에는 8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생 1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다양한 책을 읽고 자존감을 높이는 독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